

고배 풀린 소비...1월 카드사용 최고

광주 172만원·전남 142만원...지나해보다 15%·13% ↑ 광주 사용액 전국 시·도 중 4번째...통계 이래 가장 높아

올해 1월 광주·전남 1인당 카드사용금액이 각각 170만원과 140만원을 넘으며 1월 중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억눌렸던 소비가 점차 풀리는 양상이다.

이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멈춘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자영업자 매출 회복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통계데이터센터 '개인 카드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1인당 카드사용금액은 광주 172만원·전남 142만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14.7%(22만원), 12.7%(16만원) 증가했다.

이런 1인당 카드사용금액은 매년 1월 카드사용액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역대 1월 카드사용금액은 ▲2017년 광주 130만원·전남 107만원 ▲2018년 광주 142만원·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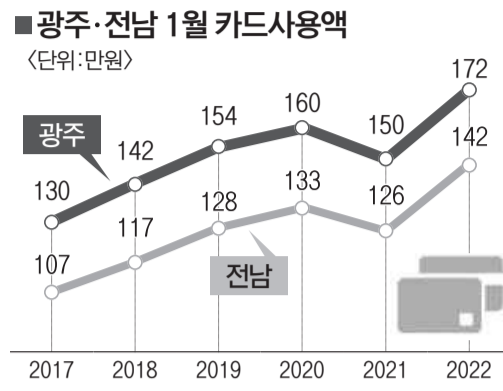
117만원 ▲2019년 광주 154만원·전남 128만원 ▲2020년 광주 160만원·전남 133만원 ▲2021년 광주 150만원·전남 12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올 1월 광주 1인당 사용금액(172만원)은 세종(211만원)과 서울(182만원), 경기(180만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높았다.

광주에 이어 제주가 170만원으로 높았고, 대전(169만원), 충남(157만원), 울산·부산(각 154만원), 인천·대구·경남(각 152만원), 전북·강원·충북(각 151만원), 전남(142만원), 경북(136만원) 등 순이었다.

특히 지난 1월 광주 1인당 카드사용금액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처음 14%를 넘으며 통계를 낸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올해 1월 지역 총 카드사용금액은 광주 2조원·전남 1조9000억원으로, 전국 카드사용금액(68조 1000억원) 가운데 각각 2.9%, 2.8% 비중을 차지



했다.

지역 총 카드사용금액은 광주는 지난해 1월 1조 7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17.6%(3000억원) 증가했다. 전남은 1조6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18.8%(3000억원) 늘었다.

통계청은 종합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카드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매달 개인 카드사용 현황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현금서비스는 제외하고 해외사용금액은 포함했다. 1인당 카드사용금액은 총 카드사용금액을 카드 대상자 수로 나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왼쪽 세 번째)는 겨울철 가뭄으로 생육부진 피해를 입은 영암 무화과 농장을 찾아 지원대책을 모색했다.

강수량 평년 8% 수준...전남 농작물 피해 점검

영암 무화과 농장 등 방문

올 겨울 강수량이 부족해지면서 농협 전남지역 본부가 농작물 가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박서홍 본부장이 최근 영암 무화과 농장과 해남 보리 재배현장을 찾아 현장 지도와 점검에 나섰다 3일 밝혔다.

올 들어 전남지역 누계 강수량은 평년(35mm)의 8%에 불과한 3mm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고추 마늘, 신안 시금치, 해남 보리, 밀 등 발작물과 과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암군 삼호읍의 한 무화과 농가는 3월이 생육에 가장 시기인데도 강우량이 부족해 뿌리가 정상 수준의 3분의 1만 자란 상태다.

농가는 가뭄이 지속되면 잎이 제대로 나지 않아 수확량의 4분의 1 가량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남농협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 차원에서 신속한 지원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물공급이 가장 중요한 만큼, 피해지역에 양수기와 관수용 호수 등 영농자재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멘트 값 급등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깊어지는 건설업계 한숨

지역 레미콘 업체 20% 인상

시멘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레미콘 단가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설 원자재 가격도 치솟고 있는 데다, 운반비 등도 오르고 있어 건설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3일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시멘트 업체들은 광주·전남지역 각 레미콘 업체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출하분부터 시멘트 판매 가격을 17~19%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7월 5.1%에 이어 7개월 만의 추가 인상으로, 이에 따라 시멘트 가격은 기존 7만8800원에서 9만2500~9만4000원 선으로 올랐다.

시멘트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는 이유는 시멘트 원가에서 30% 상당을 차지하는 유연탄의 가격 상승 때문이다. 현재 국내 시멘트업계는 유연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유연탄 수요가 증가하는데, 주요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시멘트업계의 연이은 가격 인상에 시멘트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지역 레미콘업체는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올해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반등을 기대하던 상황에서 시멘트 가격이 오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오미크론 확산 등 주택산업이 위축되고 있어서다. 자칫 원자재 수급대란으로 이어져 건설현장 적가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분위기다.

여기에 믹서트럭 지입차주들의 운반비도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레미콘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0% 상당 운반비가 오른 상황에서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지역 레미콘업체는 시멘트와 운반비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탓에 레미콘 가격 20% 이상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원자재 가격 탓에 레미콘 가격 인상이 없으면 공장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정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광주 노동계·시민단체, 도시가스 요금 동결 요구

요금 인상 땀 미납 투쟁 예고

광주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도시가스 요금 동결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요금 인상 땀 미납투쟁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3일 오후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20개 노동·사회단체가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해양에너지 본사 앞에서 벌인 기자회견에 담겼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5월 '투기자본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와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광주시와 도시가스 요금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대책위는 올해 광주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가 도시가스 요금 요구안을 시에 제출하면 원가를 공개 분석해 요금 인상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5월부터 가스요금 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23원 올리

는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7월과 10월에는 각각 1.9원과 2.3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사용량 2000MJ를 기준으로 한 월 평균 부담액은 현재 2만8450원에서 10월 이후에는 3만3050원으로 16.2%(4600원) 인상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양에너지 신입 정규직원 조모(24)씨 사건에 대한 회사 측의 자체조사 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고 합당한 보상과 대표 사과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농어촌공사 사장에 이병호 전 aT 사장 선임

농업기관 2곳 수장 첫 사례

이병호(67·사진)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선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선임되며 1년 만에 자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으로 돌아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1대 신임사장에 이병호 전 aT사장이 선임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장은 김인식 현 사장의 임기가 끝난 4일 취임한 뒤 3년 임기를 시작한다. 2020년 기준 농어촌공사 사장의 연봉과 업무추진비는 각각 1억 6475만원, 1198만원이었다.

이 사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2곳의 기관장을 모두 지내는 첫 사례가 됐다.

농어촌공사와 aT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두 곳 모두 주무기관이 농식품부다.

지난 1월 신임 사장 공모를 벌인 결과 이병호 사장과 오현석(63)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 사무국장, 조익문(62) 농어촌공사 전 상임감사 등이



각축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농경제사회학과 학사·농경제 석사를 수료했다.

농식품부 정책보좌관과 (사)통일농수산사업단 상임이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aT 사장으로 재임했다.

농어촌공사 측은 "이병호 신임 사장은 1990년대 후반 농식품 유통환경변화에 발맞춰 예년 전문영농조합을 경영하고 농식품부 보좌관 시절에는 개방에 따른 119조원 규모의 농업농촌 투자계획을 주도했다"며 "일선 현장에서부터 정책까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대표적인 농업 전략통으로 통한다"고 설명했다.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상가매매(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 전문반모집 -> 직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남구 행암동(임야)▶ 감정가 97억 -> 54억 (2/23)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3억7천 -> 3억 (2/23)
	북구 일곡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1천 -> 4억8천 (2/23)
	북구 본촌동(근린시설)▶ 감정가 15억 -> 11억 (3/2)
전남	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 3억1천 (3/3)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1억7천 (3/4)
	광산구 삼거동(임야)▶ 감정가 3억9천 -> 1억7천(3/15)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감정가32억 -> 18억 (2/21)
시외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감정가 25억 -> 11억 (2/28)
	나주시 금천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3/15)
	나주시 다도면(주택)▶ 감정가 9억9천 -> 5억5천 (3/15)
당진시 송산면(다가구원룸)▶ 감정가 4억8천 -> 8천 (2/15)	
서울특별시 중랑구(근린주택)▶ 감정가 17억 -> 8억8천(3/2)	

010-6670-9800